

김경수 지사 '댓글조작' 실행

1심서 징역 2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 유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성장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작

거범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적용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작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위원회(경공모) 산체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대처를 위한 키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 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며 "나아가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씨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발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기탁한 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치인 지지세력을 넓어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김씨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서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악법 특별검사팀은 지난 달 28일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작을 거대대상으로 보는 일탈된 정치인을 보여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50)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16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위원회(경공모) 회원 '이보카' 도모(62) 변호사의 일본 샌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있다.

YS 차남 김현철 "文정권은 안하무인·수주대토" 비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현 정권은 한 마디로 각주구경, 수주대토 안하무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상임이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와 견해 차를 이유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보름만에 현 정권을 작

심 비판한 셈이다. 앞서 지난 12일 김 상임이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족한 저는 더 이상 현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짧은 민주당 생활을 접고자 한다"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글을 통해 남북정책과 경제정책, 탈원전 문제 등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견해 차가 있었음

을 시사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을 완곡하게 비판했다. 김 상임이사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17년 4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로부터 영입제안을 받고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이후 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뒤 대선 직후인 2017년 5월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대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당 중진들, 황교안·오세훈 등 출마 자격 놓고 갑론을박

전당 대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책임당원 인정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홍준표 전 대표의 전당 대회 출마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원유철·유기준 의원은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에 대해 책임 당원 자

격을 부여할 것을 비대위에 주문했다. 전당 대회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심재철·주호영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의원은 30일 열린 회의에서 "전날 박관용 의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선관위에서 만장일치로 자격 논란이 됐던 황교안, 오세훈에 대해 피선거권이 있음을 만장일치로 확인해줬다고 한다"라며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이끄는 비대위는

다"라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을 두고는 "공직선거법에는 임기 중 직을 그만둔 선거에는 그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돼 있다"라며 "당헌·당규에 명문장이 없어서 출마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법상식에 맞지는 되풀이 불만하다"라고 지적했다. 당 대표 출마선언을 앞두고 있는 주 의원은 "선관위가 만장일치로 출마자격에 문제없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자격에 문제가 있으니 비대위에서 부여하라고 한 게 어제 결론"이라며 "당헌·당규에 의하면 당원이면 누구나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봤는데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원유철·유기준 "신속한 추진으로 매듭지어야"
심재철·주호영, 선관위 결정 비판 "견강부회"
심재철 "홍준표 전 대표 출마, 법·상식 맞는지"

격을 부여할 것을 비대위에 주문했다. 전당 대회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심재철·주호영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의원은 30일 열린 회의에서 "전날 박관용 의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선관위에서 만장일치로 자격 논란이 됐던 황교안, 오세훈에 대해 피선거권이 있음을 만장일치로 확인해줬다고 한다"라며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이끄는 비대위는

다"라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을 두고는 "공직선거법에는 임기 중 직을 그만둔 선거에는 그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돼 있다"라며 "당헌·당규에 명문장이 없어서 출마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법상식에 맞지는 되풀이 불만하다"라고 지적했다. 당 대표 출마선언을 앞두고 있는 주 의원은 "선관위가 만장일치로 출마자격에 문제없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자격에 문제가 있으니 비대위에서 부여하라고 한 게 어제 결론"이라며 "당헌·당규에 의하면 당원이면 누구나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봤는데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그는 "입당할 경우 다 피선거권이 주어지면 기회주의지만 나올 것"이라며 "당 밖에 있다가 궂은일은 안 하고 기회이면 나오고 기회가 아니면 안 나오고 이러면 당이 어찌 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병준 위원장은 "전당 대회 갈등 요인을 최대한 줄여가는 방안을 찾아서 국민들의 관심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책임 당원에 관한 문제는 내일 아침 비대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동영 "소상공인 기본법, 2월 국회 제정 앞장"

민주평화당, 국회서 첫 국민경청 최고위...지역업자·소상공인 참석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0일 '갑론을박' 채택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2월 임시국회 또는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국민경청 최고위원회를 열고 "앞서 5당 대표들과 원내대표들도 대부분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경청 최고위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골목이 살아야 서민이 산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지역업자 및 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결 방

안을 촉구했다. 강계명 서울지하상가상인연합회 회장은 "계약갱신이나 '백년가게' 등은 남의 나라 이야기"라며 "또한 시장은 생활과 같아서 사람에게 의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데 정부 관료의 전문성 없는 행정 관리로 생태계를 깨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치영 백년가게운동본부 부회장은 "한국은 새로운 것만 지향하다 보니 자동적으로 경제 논리에 의해 가게의 유지가 어렵다"면서 백년가게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많은 가게들이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홍종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현장을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지 않고 있다"

며 "평화당이 소상공인 입장에 서서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장병완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여러 차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정부는 책상머리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여기까지 (문제가) 흘러왔지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대표는 다만 "상가 개념에 '음식점'이 포함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아르바이트생 등 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문제 등 입법 정책 과제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추진하겠다"며 "백년가게 운동 역시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일로 340번안길 5

광산구
Drawing 이호동